

■ 2023년도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9:30~19: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 심의위원(가나다순) : 기혜경, 김기수, 오연서, 우혜수, 최태만

창작의 과정은 시각예술분야의 우수 기획전시의 실현을 위한 심화연구와 사전 준비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3년도에는 좀더 많은 단체가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기간제한 없이 최소 2회 이상 기획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라면 응모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은 총 61건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

심의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크게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기획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둘째는 연구주제 전반에 대한 평가(30%), 셋째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30%)이 그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공적자금이 기금으로 제공되는 사업이기에 연구주제에 맞추어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과, 연구 목적이 우리 미술계와 미술비평, 미술사에 어떠한 시의성을 갖고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연구가 얼마나 내실있게 준비되었는지 여부, 예산계획의 구체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심사의원들은 위와 같은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역량있는 지원자의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응모안 중에는 전시 사전연구, 혹은 미술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리서치 기획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나 아직은 실체화 되지 않은 고민의 단계, 혹은 그 고민의 가닥을 찾아나가기 위한 계획안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심의보다 우리 미술계의 근저에서 새롭게 다가올 근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동시대 미술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새로운 표현 영역과 매체, 인지체계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연구 기획서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체없는 디지털 세상을 매개로 한 ,AR, VR, XR, AI 등 다양한 기술을 시각예술 전시 기획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와 더불어 그것들을 어떻게 전시라는 형태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있는 기획안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가 제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 전반에 걸쳐 실험성과 도전성, 리서치를 위한 계획성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리서치의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주제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총 61건중 최종 13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계획안들은 미술계의 오래 묵은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대안성을 찾는 연구에서부터, 미술사 및 주제 연구, 새로운 경향을 아우르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하다. 모쪼록 이들 연구가 사전연구

단계에서를 거쳐 전시로 연결될 구체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정된 연구들이 우리 미술계에 자양분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안배를 감안하여 지역 소재 단체 응모안에 50만원씩을 추가 배정하였는데, 선정된 안들은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심의위원 일동